

WTO/GATS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김명호* · 김환규**

A Study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
Industry for FTA Under WTO/GATS System

Kim, Myoung-Ho · Kim, Hwan-Giu

目 次

- I. 서 론
- II. 서비스산업의 위상증대와 현황
- III. FTA의 추진과 서비스산업의 연관성
- IV.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V. 결 론

I. 서 론

서비스분야의 교역은 전체 세계무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GDP의 50%에 이르고 있고, 전체 고용인구의 약 70%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국가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2002년 2월부터 협상이 재개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GATS는 세계경제에서의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점진적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무역의 확대와 모든 무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회원국의 개별 서비스분야에서 법적 구속을 갖는 무역제도들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있어 WTO/GATS 체제에서의 FTA 협상 체결을 위한 올바른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논문의 구성은 I장은 서론이며, II장은 서비스산업의 증대현황과 그 정확한 개념 정리를 III장에서는 FTA 추진과 서비스무역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IV장에서는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현재 발표된 논문은 아래와 같다. 박문서는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협상전략, 프로세스의 접근, 통계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분야에 전방위 분석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박순찬과 강문성은 ASEAN과의 서비스 무역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변윤은 서비스거래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중 서비스무역의 대한 정의와 협상전략과 무역자유화에 대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1> 기존문헌 연구

저자	년도	내용
박문서	2004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2005	FTA 추진과 서비스무역의 협상전략
	2006	서비스무역 프로세스 분석과 시사점 서비스무역 통계의 정보가치 제고방안
박순찬, 강문성	2005	한·ASEAN FTA에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영향 분석
이지석	2006	GATS와 Mode 4의 협상시나리오 분석
정변윤	2005	서비스거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

Ⅱ.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위상증대

1. 서비스산업의 의의와 분류

서비스(Service)라 할 때 이는 “가령 노동, 기술 또는 자문과 같이 인간의 노력 형태를 띤 무형의 상품”이라든지 “시장에서 구매·판매되는 모든 무형적제품” 또는 “재화가 아닌 무형의 경제재의 생산활동”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¹⁾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무형적제품의 다양성과 각국의 법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정의를 내리고 각국마다 국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무역을 대한 개념 정의는 2003년 12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정의) 조항에서 신설되었다. 즉, 서비스무역이란 함은 외화의 지급이나 영수 등을 조건으로 행해지는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간 용역의 수출 또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수출의 정의를 “매매 또는 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외국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종전 재화무역의 수출 개념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용역 거래로 규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비스의 공급형태 4가지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항이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서비스상품을 포괄하는 “수출” 및 “수입”의 용어가 정의된다면 “무역”에 대한 용어도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쉽게 정의될 수 있다.²⁾

물품무역의 프로세스는 거래관리 차원의 흐름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대금결제방식 별 또는 거래대상 품목별로 변형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물품무역 이외 금융, 운수, 여행, 건설, 정보통신 등 서비스상품의 국제거래를 의미하는 서비스무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프레임 속에서 그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을 의미하는 서비스의 국경이동형으로, 외국소재 은행에의 예금가입, 위성을 통한 뉴스공급 등은 국경이동형 서비스무역의 예가 된다.

1) 유진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p.15

2) 박문서,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p.224.

둘째,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로의 서비스공급을 의미하는 해외소비형으로, 해외관광, 해외유학, 환자의 해외치료 등은 해외소비형 서비스무역의 유형이다.

셋째,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체를 통한 서비스공급을 의미하는 상업적 주체형이다. 외국기업의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의 설립을 통한 거래는 상업적 주체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 주체를 통한 서비스공급을 의미하는 자연인 주체형이 있다. 외국인이 교원이 국내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우리나라 본사 직원의 해외파견으로 외국기업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 유형의 서비스 공급이다.³⁾

<표 2> WTO/GATS의 서비스무역 거래방식

형태	유형	국제수지	WTO/GATS 제1조
Mode 1	국경 이동형	운수, 커뮤니케이션, 보험, 금융, 특허권 사용료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Mode 2	해외 소비형	여행	일국 내에서 타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Mode 3	상업적 주체	급료 및 임금	일국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내 상업적 주체를 통한 서비스 공급
Mode 4	자연인의 이동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	일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국내 자연인의 주체를 통한 서비스 공급

자료: WTO와 BOP(Ballance of Payment), IMF 2005의 자료로 재인용.

2. 서비스산업의 현황

WTO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주요 서비스무역국가의 순위는 <표 1>과 같

3) 박문서, “서비스무역 프로세스 분석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1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43-44.

<WTO/GATS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다. 미국이 최대 수출입국가이며 주요 선진국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430억 달러의 수출과 577억 달러의 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적자는 147억불이다.

<표 3> 2005년 세계주요 서비스무역국가 순위

(단위: 10억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354.0	14.7	1	미국	281.2	12.0
2	영국	188.7	7.8	2	독일	201.4	8.6
3	독일	148.5	6.2	3	영국	154.1	6.6
4	프랑스	115.0	4.8	4	일본	132.6	5.6
5	일본	107.9	4.5	5	프랑스	104.9	4.5
6	이탈리아	93.5	3.9	6	이탈리아	92.4	3.9
7	스페인	92.7	3.8	7	중국	83.2	3.5
8	네덜란드	76.7	3.2	8	네덜란드	70.9	3.0
9	중국	73.9	3.1	9	아일랜드	66.1	2.8
:				:			
18	한국	43.9	1.8	12	한국	57.7	2.5

자료: 2005년 WTO 홈페이지 매뉴얼 국가순위(www.wto.org) 참조.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2005년 기준 수출 2,840억불, 수입 2,612억불로 7대 무역 대국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무역 규모는 아직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상품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가 서비스무역의 협소함과 적자 확대로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여행수지적자(유학 및 연수, 국내인의 외국여행) 주된 이유이다.⁴⁾

4) Heon Seo, "A Study on the Status and Causes of Growing Service Trade Ddficit-Focused on Korean Tourism Industry",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9. Number 1, Mar. 2007, p.2.

3.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위상

서비스산업은 운송부문처럼 일부 중요한 무역부문이었지만 비무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의 기술적인 변화는 국제무역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점차적으로 강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⁵⁾

최근 UNCTA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rade and Development)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4-2007년까지 상업서비스, 도소매업, 여행,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가 외국인투자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인 규제완화 및 민영화 추세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 있어 아웃소싱산업은 매년 20%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는 규모가 2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웃소싱산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문만 해도 한 해 1,300억 달러의 규모이다. 이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개방화 및 글로벌화가 폭 넓게 진행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확보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 및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점진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자국 내 서비스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 유도와 함께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경주해 왔다.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기업들이 IT를 이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들 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비스산업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으로 빠르게 편입되었다.

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는 국내 서비스 관련 기업에게 위협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산업의 개방화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쟁상황은 아직은 생산성 및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을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 흐름은 단기적으로 국내서비스기업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⁶⁾

5)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o, "Servic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 in serv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0, p.284

6) 김미정, "중국 서비스산업 패러다임과 중국현황",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 pp.289-290

Ⅲ. FTA 추진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1. FTA 추진과 GATS, 서비스무역 연관성

당사국간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이 FTA이다. FTA는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재화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성 확대 등을 통한 체약국의 경제적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각국들이 그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FTA는 WTO에 의한 다자주의(multilaterlism)의 태생적 한계, 즉 회원국간 합의 도출 곤란, 느린 자유화속도, 개별국의 이해 충돌 곤란 등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무역의 경우는 자유화의 범위가 넓고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폭넓게 연계되어 있어서 다자간 체제에 의한 자유화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체약국간 상호합의에 의한 자유화 추진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추진 방식은 WTO 다자간 체제에서나 FTA 지역주의 체제에서 마찬가지로 회원국 또는 체약국간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비스상품은 재화상품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관세부과 문제, 무역거래 절차적 문제 등에서 가격 차별화 요인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창출 효과 내지 무역전환효과 등을 재화무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⁷⁾

WTO/GATS는 서비스의 국제무역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 탄생한 것이다. 서비스협정은 각 회원국이 국가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대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각국이 개방분야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방분야에 있어서도 사전에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 사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7) 박문서, pp.3-4.

GTAS 제5조 경제통합에 따라 서비스 부문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동 조 제1항에서는 체약국의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역외국에 대해 협정체결 전보다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벽수준을 높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 서비스협상의 절차적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FTA 서비스협상은 WTO/DDA 서비스협상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한·칠레 협정에서도 양허한 서비스의 범위만 다를 뿐이었다. 둘째, GATS 목표와 마찬가지로 FTA 서비스협상 역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상의 강제성을 요구하는 GATS 다자간 체제와는 달리 체약국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선택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상대국을 선택하여 추진된다. 셋째, 협상의 목적은 서비스 부문의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써 서비스수출을 늘리는 데에 있다. 또한 서비스수입 측면에서는 서비스수입에 따른 후생증진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GATS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한다.⁸⁾

2. 서비스무역원칙으로서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는 서비스협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이다. 대부분의 FTA 모두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관련 기본의무들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 두 규정은 서비스무역협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GATS의 내국민대우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WTO 각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의 결과로 나타난다. 최혜국대우는 일반적 의무지만 일정기간 면제될 수 있다. MERCOSUR는 회원국간에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적용에 어떠한 예외도 없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하여 양 원칙의 잠정적 혹은 영구적 예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치는 협정 발효시기 혹은 협정 발효 후 일정기간내에 연방 혹은 지방정부별로 전술한 해당 협정의 유보목록을 혹은 불합치조치에 명기되어야 한다.⁹⁾

8) 박문서, “FTA 추진과 서비스무역 협상전략”,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pp.186-187

9) 윤창인, “지역무역협정(RTA) 서비스부문 자유화 접근방안에 대한 고찰”, 「세계경제」 2005년 9월, p.32.

3. 문제점

서비스무역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협정체결에 있어서 양국간의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여 다자간 체제에 의한 자유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어 자칫 FTA 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에 WTO/GATS는 체약구간 상호 합의에 의한 자유화 추진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회원국, 체약국간의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한 서비스협정 체결에 기본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각 회원국의 국가간 차별을 두지 않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 대우의 원칙 또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서비스무역이 증대되는 현 경제협정 체결의 상태에서 FTA 체결에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 법적 장치들이 정비되어야 하나 법적 장치들의 기본적 성격이 과거처럼 규제 내지 제한조치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에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¹⁰⁾ 또한,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증대가 이어지는 중국은 이미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화와 체질개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정책을 전략적 비교분석을 통한 FTA 대비전략과 혁신적 정책도 부재한 실정이다.¹¹⁾

I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1.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1)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국내 서비스체질 강화를 위하여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 등의 법제도 정비와 서비스 기업들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을 유도하여 금융, 세제, 교육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부분은 고객의 니즈, 서비스 질, 기술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시장

10) 박문서, 전계논문, p.227.

11) 김미정, 전계논문, p.303.

을 예견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매개로 하여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하여 국내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02년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부문별로 정비하여 나가 고 있다. 우선 제반 법령에서 소외되던 서비스부문을 법 제도권 안으로 신속 편입시켜 나가고 있고, 제조 부문 내지 물품무역과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등 서비스 부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¹²⁾

그러나, 경쟁축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규제완화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경쟁력 확보

서비스시장은 글로벌화에 의하여 개발될 수밖에 없으며,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개방과 경쟁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서비스 부분의 경쟁력이 낮은 주원인은 경쟁 제한적인 정부규제이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철폐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서비스기업들의 대형화,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영세한 기업규모는 생산성이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통하여 중국과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

(3) 지식기반 전문서비스업 육성

지식기반의 전문서비스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M&A를 비롯한 금융보험서비스, 법률, 경

12) 박문서, "서비스무역 통계의 정보가치 제고방안",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지, 2006, p.100.

영컨설팅, 건축 및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산업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¹³⁾

(4) 서비스무역 기본법 제정

우선 서비스무역을 총괄하는 기본법을 별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거는 향후 더욱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산업 및 무역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할 수 있다.

이미 서비스수출 핵심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IT 수출은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문화관련 서비스상품은 문화관광부에서, 과학기술관련 서비스상품은 과학기술에서, 통상협상의 상당부분은 외교통상부에서, 서비스무역 대금결제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는 등 주무 부서 및 법 체계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수출전략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므로 이를 통합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WTO/GATS 규범에 일치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법안으로 입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현존 대외무역법이나 무역관련 특별법과의 관계 설정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주무 부서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⁴⁾

2. FTA를 대비한 서비스 전략 강화

(1) 국별 경제구도 활용

서비스무역의 국가간 경쟁력 상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경쟁력 수준은 곧 협상력을 결정한다. 또한 FTA 협상에서는 개방의 범위나 일정을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 관한 협상이 단기간 협상으로 끝날 수 있다. 즉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13) 김미정, 전계논문, pp.303-304.

14) 박문서, 전계논문, p.227.

국내 서비스산업 부문을 정비하거나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FTA 추진과는 별개로 사전에 주요 서비스무역 상대국별 시장개방 관련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협상단계에서 상대국의 경제발전수준을 서비스무역이라는 특수성과 연계시켜 미시적 전략들을 도출해 내야 한다. 정보사회의 심화로 서비스 패러다임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항상 변하는 서비스 공급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동시에 감안하여 FTA 체결 당사국간 Win-Win 게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 공세적 전략의 기조 유지

과거에는 서비스를 비교역재로 인식하여 거래 대상이 아니라거나 또는 국경이동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간주하여 무역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이 시작되면서 각국은 서비스 부문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국제협상의 무대에서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WTO/GATS 협정이 발효된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경과한 지금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성을 부정하거나 교역재로서의 서비스를 부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적 상황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의 주요 무기로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FTA 협상에서는 다자협상과는 달리 서비스 시장개방의 문제보다는 서비스의 거래적 측면에 협상전략의 역점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개방이라는 피동적·소극적 대응책 보다는 서비스수출이라는 능동적·적극적 대응전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¹⁵⁾

(3) 서비스거래의 장벽제거

각국은 국내의 고용안정 그리고 국내서비스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거래를 규제하고 있다.¹⁶⁾ 즉,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15) 박문서, 전계논문, p.192.

위하여 서비스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또는 자유로운 규제가 국내 복지를 최대화하는지 안하는지를 시장실패에 대한 복잡한 판단과 그 나라 국민들의 위험선호도의 관점에서 어떤 특별한 규제제도가 가지는 비용과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각 회원국의 규제는 그 국가내에서 국내복지를 최대화하는 사회적 최적상태를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서비스거래를 국제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규제의 변경은 국내복지를 최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의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서비스거래의 자유로운 거래 그 스스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초과하여 이득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거래를 국제적으로 자유화하려는 옹호자들은 서비스거래의 자유화가 국제적인 이득을 극대화시키면서 서비스거래에 대한 국내규제를 철폐하는 이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일한 경기장소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로운 서비스거래는 국제적인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과잉현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서비스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국내복지와 국제복지 사이의 분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리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정한 규제기준이 없는 곳에서는, 서비스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인 복지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결국, 서비스거래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면서 서비스거래를 국제적으로 자유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모든 서비스거래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¹⁷⁾

V.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FTA 로드맵을 구성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의 위상과는 달리 서비스수지에 대한 적자폭은 증가되어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FTA 체결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공격적인 FTA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정책적 제

16)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8, p.514

17) 정병윤, “서비스거래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 - GATS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 p.335

안을 하였다. 시대적으로도 전 세계 무역량의 약 20%가 서비스무역임을 살펴보았듯이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 경제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되고 서비스의 발전 없이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증대에 따라 FTA에서 서비스의 중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협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협상의 적용범위, 자유화 원칙 및 개방약속의 심도로 볼 수 있다. 서비스협상당사국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관한 선택대안 메뉴를 개발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최종 서비스협상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기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의 적용범위, 자유화 원칙 및 개방약속의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와 협상전략을 고려할 때 첫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부터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① 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화 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발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②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여세한 기업규모의 통합, 생산성 증대, 대외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발전 로드맵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③ 지식기반 전문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④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FTA를 대비한 서비스 전략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서비스무역의 국가간 경쟁력 상태를 점검해서 국가별 경제구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②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그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 전략의 기초유지가 필요하다. ③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 체결국가들은 서비스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이끌어 내기 협상에서 서비스거래의 규제부터 먼저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극수, “우리나라의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국제분업 패턴 분석”,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2004.7
- 김미정, “중국 서비스산업 패러다임과 중국현황”,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 e비즈니스학회, 2006
- 김상중, “중소기업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통권 제30호, 한국생산성학회,

2001.

김상환,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IF 금융논단집』 제13권 제11호, 2004, 한국금융연구원

김우봉 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9

박문서, “서비스무역 통계의 정보가치 제고방안”,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지, 2006

_____, “서비스무역 프로세스 분석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1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06.

_____,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_____, “FTA 추진과 서비스무역 협상전략”,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서헌재,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8

유진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윤창인, “지역무역협정(RTA) 서비스부문 자유화 접근방안에 대한 고찰”, 『세계경제』 2005년 9월

정병윤, “서비스거래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 - GATS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o, “Servic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 in serv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0